

기획특집 광주민중항쟁과 여성-5·18특별법 제정 과제들

90년 보상시 남성 피해자 절반 수준에 그쳐

5·18특별법 제정 계기 여성 피해 상황 명확히 규명해야

5·18광주민중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의 역학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 연구는 80년 당시의 피해가 15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신·신체적 증후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충격을 추적 조사해 '사회적 대난'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편집자 주〉

5·18 특별법 제정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쟁 당시 사망 혹은 부상 당한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0년 5월 항쟁 당시 광주 여성은 남성들과 함께 항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측면 지원을 통해 항쟁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에 못지 않게 여성피해도 컸다. 특히 항쟁 기간 동안 육체적 부상 외에 고문, 구금, 성폭행 등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지금껏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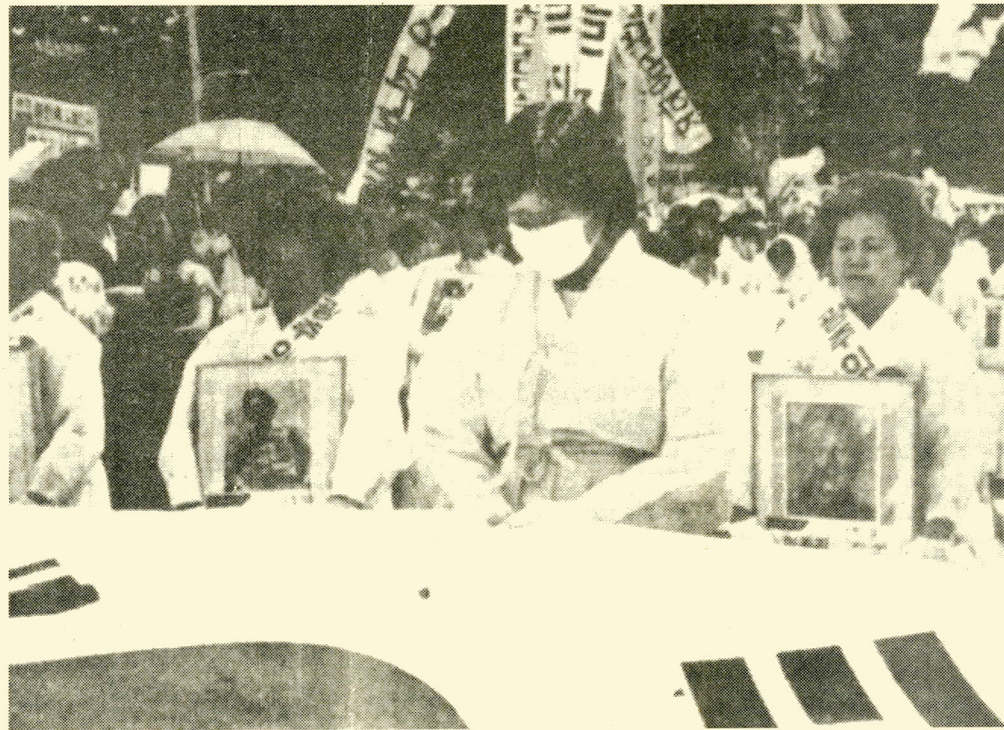
여성, 가정파탄 많아

90년 6공화국은 그간 '광주사태'로 폄하돼 온 광주민중항쟁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항쟁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다. 그러나 당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지급돼 무직이거나 연령이 높은(55세 까지만

보상 대상) 여성들의 경우 남성의 30~40% 선에 그친 약소한 보상금을 받았다. 남성 피해자들이 보통 5천~6천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에 비해 여성은 3천~2천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이다.

여성피해자들은 특히 유방, 질, 방광, 자궁 등에 총알, 파편을 안고 있어 제대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파탄, 연쇄사망 등 고통이 대물림되는 사례가 많다. 그간 이러한 피해상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광주항쟁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오늘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였다.

광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5·18관련 피해자는 사망자 1백54명(5·18관련단체 2천여 명 주장), 인정된 행불자 47명, 미확인된 행불자 1백7명, 부상자 2천6백47명, 연행 구금자 5백5명이다. 이중 40% 정도가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에서 부상 후유증으로 죽은 사망자가 83명, 부상부위와 관련없이 사고사 등으로 죽음을 맞이한



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여성피해자들은 특히 유방, 방광, 자궁 등에 총알, 파편을 안고 있어 제대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파탄, 연쇄사망 등 고통이 대물림되는 사례가 많다.

사망자도 50~60명에 이른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사는 이추자 씨(40). 항쟁 당시 임신 3개월의 임신부였던 그녀는 안방에 앉은 채 총상을 입었다.

악몽, 수면방해 호소

"5월22일 오후 5시 경 국

군들의 집압 과정 중에 저희 집 2층 방으로 총알이 날라와 그 순간 의식을 잃고 통합병원으로 후송됐어요. 그 때 임신 중이었는데 치료하고 주사약을 주입하더군요. 치료받다가 학생으로 오인돼 몇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임신 중이라고 알리니까 배를 발로 차면서 갖은 욕설

에 폭행을 하더군요. 실신도 하고 입덧도 심해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 혹시 기형아를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어요. 의사들은 낳아봐야 안다고 얘기하더군요. 귀에 박힌 파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이 씨의 상처는 거기서 끝

나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도 뒷처리가 안좋아서 계속 병원 신세를 졌다.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정이 가지 않고 아이가 몸에 손만 대도 소름이 끼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현재 총알이 박혀있는 얼굴과 다리는 마비가 되고 있고 극심한 빈혈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항쟁 당시 2살이었던 김래향 양(19, 서울시 금정구 시흥동)의 척추 속에는 지금도 탄환 2개가 박혀 있다. 항쟁 중이던 5월 22일 래향 양의 아버지 김성수 씨(63)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내와 딸 래향을 고향인 진도로 대피시키기 위해 광주를 빠져나가던 중 공수부대와 만났다. 공수부대원들은 그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고 광주방향으로 되돌아 가려는 순간 뒤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래향 양의 어머니는 당시 받은 총상으로 결국 85년 작고했다. 아버지 김 씨도 등에 총상을 입었다. 래향 양은 척추에 탄환을 맞아 신경이 끊어져 버렸다. 이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되고 등이 심하게 휘었다. 척추에 박혀 있는 탄환의 납성분으로 후유증도 심각한 상태다. 래향 양은 지난 8월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독학으로 대입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아저씨들이 왜 나 같은 어린 아이에게 총을 쏘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마저 죽이고 싶었던 고통